

출애굽-선민의식의 빛과 그늘

미야다 미쓰오(宮田光雄, 일본 동북대 명예교수)
김 성 순(장로, 경북 김천 덕천교회)역

오늘날 정체된 현상에서의 탈출, 미지의 장래를 향한 새 출발이 요구된 지 오래이다. 구약성서의 '출애굽기'는 이 탈출의 역사를 전형적으로 말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의 전제(專制)하에 노예노동을 강제 당하고 있던 애굽에서 탈출을 시도, 갈대바다에서 애굽 전차부대가 전멸하는 기적을 경험한다. 마침내 시내산 위에서 야훼의 현현(顯現)에 접하고 '십계'를 받은 후 "젓과 꿀이 흐르는" 새나라에 도달한다. 실제로 '출애굽'이란 말은 지금은 해방과 탈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성서적 상징의 하나라 하여도 좋지 않을까 한다. (중략)

장구하고 변화 많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노예에서 자유로 인도하는 하느님에 대한 근원적인 신앙고백은 되풀이되었다. 온갖 곤란한 역사적 상황은 이 신앙고백으로 해석되고 극복되어왔다. 유명한 십계의 전문에는 출애굽을 인도하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고백이 강령적으로 선언되고 있다. 또 시편이나 예언서에서도 출애굽의 추억은 하느님 찬양의 동기로, 사회비판의 기준으로, 또 포로에서의 해방이란 희망의 근거로 인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역사적 사건과

기적적 신앙과의 근원적인 결합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적 경건의 기본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말해도 된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정체성(正體性) 형성의 원체험이 된 것이다.

출애굽은 특정 민족의 정체성을 받쳐주는 상징만은 아니다. 일반적인 개인 차원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즉 소외와 폐쇄로 괴로워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인격의 전체성을 회복하는 자기실현의 심리적 과정에 있어서도 타당한 지 않을까? 유아적인 의존관계 속에서, 타자(他者)의 마음대로 이끌리는 상태에서 자기를 해방하기 위해서 분리 독립하는 '개성화'의 길도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출애굽이란 상징에 의해서 표현된다.

그러나 출애굽은 정치적 상징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출애굽의 메시지는 성서시대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해방운동과 사상, 독립투쟁에 용기를 주고 생명을 불어넣어 왔다. 교회 안팎에서 선교와 사상의 자유를 구하는 많은 운동 예를 들면, 북이태리의 발도파, 보헤미아의 후스파, 영국의 퓨리탄들은 이 구약성서의 증언에서 영감과 언어와 정통성을 얻고자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옛 잉글랜드라는 '애굽'을 떠나 바다를 건너 북미 땅에 뉴 잉글랜드라는 '가나안'을 건설하고자 한 17세기의 필그림(pilgrim) 조상들의 역사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의 소명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한 '선민'이라고 확신했다.

1776년 7월 아메리카 독립선언이 나올 때 토마스 제퍼슨은 출애굽에 연유한 국가적 문장(紋章)을 의회에 제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물론 출애굽운동은 언제나 새 땅, 새 대륙에의 이주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의식을 만들고 사회적·정치적 변혁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쳐 미국 남부에 퍼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공민권 운동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가령 1956년 5월 17일 뉴욕 사도요한 대성당에서 행한 킹의 설교는 출애굽기(14:30)을 텍스트로 하여 흑인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해서 말했다. 킹이 1968년 4월 흉탄에 쓰러지기 전 24 시간도 안 되는 때에 멤피스에서 한 최후의 말은 출애굽의 상징과 연결되어있다.

“하느님은 내가 산 위에 오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산 위에 올라 나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약속의 땅에 나는 갈 수 없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백성들은 기필코 약속의 땅에 도달할 것을 오늘밤 여러분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밤 나는 행복합니다. 두려운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이 눈으로 주님이 나타나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모세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킹의 신앙고백은 남부의 공민권 운동에서 시작되어 베트남 전쟁반대, 남북문제까지 운동의 시야를 넓힌 그의 사상과 행동이 출애굽의 상징인 해방을 위한 투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킹에 있어서 이 이야기는 악이 멸망한다는 것, 비인간적인 억압과 부정한 착취는 종말을 고한다는 것의 상징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몇 세대에 걸쳐 배양된 흑인영가의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것을 뜻한다. 미국 남부 플란테이션(대규모농장)의 흑인 노예들은 신앙과 자유에의 요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애가(哀歌)’인 영가(靈歌)를 만들어냈다. 그들의 항의의 노래,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신앙의 찬송가에는 출애굽에 의한 해방이란 테마가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한 예인 ‘가라 모세’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포로였을 때
우리 백성을 해방하라
참을 수 없는 억압아래 있을 때
우리 백성을 해방하라
가라 모세여 멀고 먼 애굽 땅으로
파라오에 고하라 우리 백성을 해방하라”고

1862년 가을, 링컨 대통령은 이듬해 1월 1일의 노예해방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워싱턴에서는 그믐날 밤에 도망한 노예들이 집회를 열고 그 시작을 기다리면서 '가라 모세'를 계속 부르고 있었다고 한다. 링컨의 노예해방령에 대해서는 많은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흑인들 자신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유사한 역사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았다.

북미에 건너간 퓨리턴들의 건국의 역사는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비극 즉, '미국 역사의 원죄'를 동반했다. '래드 인디언'의 학살을 '하나님의 도살(屠殺)'이라고 표현한 성직자도 있었다(T 세파드). 원주민들은 기껏해야 '가나안 인'으로, 심할 때는 '악'의 위병으로 취급되고 '선민'에 의해 존중받아야 할 아무런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다. 회심보다 정복이 중요한 목표였다.

신교의 자유와 해방에의 열광은 그것을 엄격히 강제하는 '거룩한 순종주의'로 전화되어 갔다. 여러 죄상들은 구약성서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데 대한 중대한 경고를 의미한다.

해방사의 '상징'으로써의 출애굽은 희망에 넘친 패러다임(paradigm)인 동시에 위협에 찬 패러다임이기도 하다. 현대세계에서도 이 상징은 양의적(兩義的)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해방신학』(G. 구티에레스)에 있어서는 해방의 원형으로서의 출애굽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읽힐 때 중시되는 것은 파라오의 억압적 지배와 모세의 억압자·피억압자 쌍방에 대한 지도의 역학(力學)이다. 출애굽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해방의 한 전형(典型)이며 성서와 현재의 경험을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P. 페리망 『해방신학과 라틴아메리카』). 그것은 이 상징을 '빛'의 측면에서 본 관점이다.

그러나 '그들'의 국면 또한 현재적이다. 가령 '기독교 국가 미국'이라는 건국신화의 입장에 서는 미국 종교우익의 논리에도 그것이 뚜렷이 나와 있다. 본래 미국 '시민종교'에는 예언자형과 제사형의 두 유형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예언자형 지도자는 초월적인 힘에 호소

하고 이상 숭배적인 민족주의에 대항하여 국가에 대해서 정의의 길로 돌아오도록 작용한다. M.L.킹의 공민권 운동 같은 것이 이 유형에 들 것이다. 그러나 제사형의 경우 미국을 지구상 가장 위대한 나라로 간주하고 자유의 보급을 종교적 사명으로 하는 애국주의와 결부한다. 이리하여 '하느님의 축복 하에 있는 미국'이라는 건국신화에서는 경우, 세계를 선과 악으로 분극화하여 적과 나로 나누고 미국적 가치나 입장을 절대화하는 단독행동주의에 기울기 쉽다. 아프칸과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나는 부시정권의 행동원리는 그것의 전형이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중동정책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일면적 가담의 자세이다. 그것은 언뜻 보면 출애굽의 원체험에 뿌리를 둔 건국신화와 공통성에서 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팔레스티나에서의 이스라엘의 행동을 시인하는데 있어 악의 선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갖는 양심의 가책을 달래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E.토드 『제국이후』)

이스라엘 정부의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영토확대 정책을 배후에서 지지하는 '대(大)이스라엘 주의' 주장에는 출애굽의 경직된 이해가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 출애굽이 이루어진 갈대바다의 위치를 둘러싸고 구약성서의 기사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나일델타의 호소(湖沼)지대라고 이해되나 '애굽의 바다'(이사야 11:15)라고도 불리고 홍해 내지 현재의 수에즈만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다. 더욱 열왕기상(5:26)에서는 에시온 게벨이라는 지명과 이어져 확실히 오늘의 아카바만을 가리키고 있다. 갈대 바다는 '신학적 지리학'의 개념에 불과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즉, 신명기(2:1)나 민수기(21:4)에서 갈대 바다는 동요르단으로의 길이 바로 이어지는 '약속의 땅'의 관문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H.란벨티·쓰이린스키 『갈대 바다』 1993)

이를테면 '토지 취득'은 출애굽의 기적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다윗 왕국의 판도 자체가 출애굽과 이어지는 하느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도 있다. 현대에 있어 이 '하느님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유대교의 우익보수주의 입장이다.

이런 영토확장 정책에 반대하는 팔레스틴 민중의 저항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는 압도적 무력에 의한 '국가적 테러'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라크 안팎으로 확대된 과격파의 테러리즘에 '성전(성전)'의 구실을 주고 있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자신의 침략(점령)정책이 아니었던가! 이라크와 이란을 논하는 부시대통령과 샤론 수상이야말로 '악의 축' 그 자체라 할 것이다.

해방신학을 유대교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인티파다의 저항에 직면해서 이스라엘 국가의 토지확대 정책을 홀로코스트와 연결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오히려 팔레스틴 민중의 현재의 고난의 역사를 유대인 자신의 역사 속에 포함할 것, 동일시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점령은 '어리석고도 비도덕적'이며 '윤리적 증언에 대한 배반'이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은, 아니 전세계의 유대인은 팔레스틴 민중이 해방되지 않고는 해방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팔레스틴 민중이 해방되지 않고는 해방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팔레스틴 인의 문제가 이해되기만 하면 더 이상 점령을 계속할 수는 없다.(M.H.에리스 『희망과 배반의 사이-유대교적 해방신학의 도상에서』 1992)

미국의 비판적인 신학자 사이에서는 부시대통령의 '악에 대한 십자군' 제창에 대해서 건설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세계를 평화와 자유로 인도한다는 사명관은 미국적 도덕관의 절대화(세계적 음모)라는 착각과 '십계'에 대한 이상숭배적 이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열광적 신화'에 의해 그릇된 방향으로 인도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이제 이러한 유산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과 투쟁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적대자가 아닌 우리 자신인 것이다'(R.쥬엣트, J.S.로렌스 "캡틴 아메리카와 악에 반대하는 십자군- 열광적 내셔널리즘의 딜레마" 2003)

이것은 미국이 외교정책에 대해 자기비판적으로 묻고 평화의 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가짐으로써 참된 리얼리즘을 되찾으라는 호소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슬람 적대시에 기울기 쉬운 헌팅턴 류의 '문명의 충돌' 대신에 『제 문명에 내재하는 충돌』(D.젠크하스)에서 보여주는 보편주의적 관점의 회복일 것이다.(『世界』 2004. 2월호) 世長